



# 잊지 못할 소고깃국

이애경

내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특별한 소고깃국을 먹은 것은, 초등학교 교사 발령 첫해 추석에 막 지난 토요일 점심이다. 30여 년 전 일이지만, 커다란 은색 양동이를 킁킁거리며 들고 교무실로 들어서시던 교감 선생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9월 1일 발령받은 학교는 평택시에서 안중면으로 가는 버스를 탄 후, 한 번 더 마을버스를 갈아타야 도착할 수 있는 시 외곽에 자리 잡은 아주 작은 시골 학교였다. 학교 건물은 아담했고, 교직원은 다른 학교의 한 학년 인원도 채 안 되는 10여 명이 전부였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은 대부분 한 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서 자라는 형편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대학 시절 교생 실습으로 나갔던 학교 아이들보다 순수하고 착했다. 교통편이 좋지 않아 차가 없는 여교사들은 퇴근 때마다 교감 선생님의 차를 얻어 탔다. 여교사들이라고 해야 나까지 세 명. 나는 안중면이 집이었고 나머지 선배 둘은 안중에서 내려 버스를 한 번 더 타고 평택시까지 갔다.

추석 연휴를 앞둔 어느 날, 어느 날과 다름없이 퇴근 후 주차장으로 향하는데  
“신입밖에 없어.”

“맞아, 우리는 이제 안돼.”

“아이, 교감 선생님도 유난을 떨긴. 대충 살면 얼마나 좋아.”

선배 교사 둘이 검은 비닐봉지를 들고 속닥거렸다.

“뭔데요? 거기 뭐 들었어요?”

앞서가던 내가 선배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별거 아니야. 그냥 이따가 교감 선생님 차에서 내릴 때 살짝 드려. 추석 선물, 소고기.”

친목 담당인 선배가 까만 비닐봉지를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어머, 추석 선물을 이런 비닐봉지에 넣어드려요? 좀 심하다.”

내가 힐난하자

“교감 선생님은 포장에 화려하면 선물인 걸 눈치채고 안 받으셔.”

하면서 평소와 달리 나를 조수석에 타라고 했다. 나는 의아했지만, 겨우 그런 걸로 고민하나 싶어 얼른 받았다.

“어허, 오늘은 일찍들 나와서 기사를 기다리네.”

교감 선생님이 기분 좋은 웃음을 날리며 출발하자 나는 창문을 조금 내렸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려는 버릇 때문이다.

안중면에 도착했을 때 선배들이 재빨리 차에서 내리며

“교감 선생님, 한가위 잘 보내세요.”

하고는 달아나듯 뛰어갔다. 내 무릎에 놓인 검은 비닐봉지를 보며 눈을 찡긋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선배들보다 한발 늦게 내린 나 역시 비닐봉지를 교감 선생님에게 건네고

“교감 선생님,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외치고 열린 차 문을 닫았다.

“이거 가져가.”

말과 동시에 갑자기 창문 밖으로 검은 봉지가 날라왔다. 본능적으로 봉지를 안전하게 받아 든 나는 다시 재빨리 열려있는 창문으로 던졌다. 봉지가 조수석에 안착한 바로 그때 교감 선생님의 차가 출발했으므로 나는 선배들이 맡긴 임무를 완수한 셈이다. 순식간에 봉지가 몇 번 오가며 얼떨떨했지만, 결국 선물 전달에 성공했다는 뿌듯함에 짜릿함까지 느꼈다. 저녁에 친목회장인 선배가 전화로 소고기 전달 여부를 확인하기에 나는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다. 워낙 목소리에 흥이 묻어나는 선배는 마치 내가 큰일이라도 한 것처럼 칭찬하며 기뻐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의례 명절에는 친목회에서 관리자에게 선물하는데, 교감 선생님은 절대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교감 선생님의 유난스러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친목회원들에게도 식용유나 주방세제 등 작은 선물들을 돌리는데, 뭘 그리 주는 사람을 힘들게 할까?

추석 연휴가 끝난 토요일 아침, 교감 선생님이 차에서 커다란 들통을 들고 킁킁거리며 교무실로 들어섰다.

“교감 선생님, 그게 뭐예요?”

커피를 마시던 우리가 동시에 눈이 휘둥그레지며 묻는데

“따라와.”

한마디 하고 교감 선생님 다시 밖으로 나갔다. 영문도 모르는 우리는 감 선생님을 쫓르르 따라갔다. 교감 선생님이 트렁크에서 따끈한 밥 열두 공기, 김치가 가득 든 플라스틱 용기, 김, 멸치 따위의 반찬을 계속 꺼내길래 마치 기계처럼 받아 들고 교무실로 날랐다.

“수업 끝나고 다들 점심 먹고 가.”

다소 화가 난 듯한 교감 선생님 말씀을 뒤로 하고 모두 교실로 올라갔다. 오후에 교무실에 내려오니 휴대용 가스렌지 위에 올려진 들통에서 김이 폴폴 나고 있었다.

“자네들이 그런 걸 주면, 집사람이 고생해.”

미리 내려온 친목회장은 그럴 줄 알았다는 얼굴로 들통에서 끓고 있는 소고깃국을 연신 국자로 퍼서 돌리고 있었다. 이럴 수가! 교감 선생님은 추석 선물로 받은 검은 봉지 속 소고기를 모두 국으로 끓여서 가져온 것이었다!

덕분에 맛있게 점심을 먹으면서 나는 교감 선생님의 행동에 감동하기도 했지만, 좀 특이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다. ‘명절이면 으레 누구나 고마운 분이나 웃어른에게 선물하는 것은 우리 고유의 문화가 아닌가? 모두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걸 교감 선생님은 왜 저렇게 유난을 떨까?’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당연하다는 듯이 음식을 나눠 먹으며 도란거렸다. 교감 선생님이 거절한 명절 선물 덕에 왁자지껄하고 행복한 토요일 점심이란 추억을 갖게 되었다.

급식이 없던 시절, 이 학교는 교통도 문제였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점심이었다. 대부분 자취생인 교사들과 나는 업무 처리와 교재연구만 해도 벅차서 도시락까지 쌀 여력이 없었다. 외지고 작은 시골 마을에 그럴듯한 식당이 있을 리 없다. 식당이라고 해야 교문 옆에 있는 백반집과 중국집이 다였다.

백반집과 중국집을 번갈아 가며 점심을 해결하다 질릴 무렵, 학부모회장이 식사 초대를 했다. 가을 운동회를 한 날이라 전교생이 일찌감치 하교하고 교사들만 모여 피곤을 식히고 있던 날이었다. 학교에서 1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숲속에 갈빗집이 있었는데, 바로 그 식당을 학부모회장이 운영하고 있었다. 공단이 모여있는 그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맛집이었다. 식당에서 운영하는 작은 봉고차를 보내준다니 10여 명의 직원이 타기에도 안성맞춤이었다. 그날은 하필 내가 점심시간에 교무실을 지켜야 하는 당직자였기에 친목회장이 점심 초대 사실을 공지했을 때 몹시 아쉬웠다. 라면을 끓여 먹을 요량으로 라면 하나를 달랑거리며 교무실에 내려갔을 때, 교사들과 교감 선생님이 실랑이하고 있었다. 대충 들어보니 교감 선생님이 식사하러 가지 않겠다고 해서 교사들이 설득하는 중이었다.

“교감 선생님, 그냥 좀 가볍게 생각해요. 밥 한 끼 먹는데 뭘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결국 혀를 꼰꼰 차며 교장 선생님까지 나서서 거들었다. 교장 선생님은 평소 교감 선생님과 죽이 잘 맞는 사이지만, 이번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교직원을 데려갈 식당 차량이 도착할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 선생, 오늘 점심 당직이죠? 교무실은 내가 맡을 테니 가서 밥 먹고 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양념갈비를 먹을 수 있다니. 라면으로 점심을 간단히 때울 생각이었던 나는 어린애처럼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출 수 없었다.

“그래도 제가 오늘 당직인데..... 그냥 다녀오시죠.”

나는 맘에도 없는 말을 예의 삼아 작게 뱉었다. 평소 태도로 미루어, 어차피 교감 선생님은 학부모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기에. 완강하게 버티던 교감 선생님은 교무수첩을 꺼내더니 업무에 돌입하는 자세를 보였다. 밖에서 경적을 울려대는 소리에 하는 수 없이 와르르 몰려 나가던 교직원들이 한마디씩 했다.

“아, 대단하셔. 저렇게 혼자 깨끗한 척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그러게. 너무 깨끗해도 주위에 사람이 없는 법인데.”

“남자가 왜 그리 소심한지. 배포가 없어, 배포가.”

“뭐가 그리 두려운 거야? 겨우 밥 한 끼에.”

행정실 직원들뿐 아니라 평소 친하게 지내던 선배 교사들마저 교감 선생님을 비난하는 대화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나 역시 교직원들과의 회식에는 즐겨 참여하면서, 외부에서 초대하면 절대 응하지 않는 교감 선생님이 별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었다. 빈번한 식사 초대에 가는 것을 모두가 당연하게 여겼고, 청렴이란 개념이 희미했던 내게 교감 선생님의

그런 모습은 낯설고 정나미가 떨어지는 순간이기도 했다.

갈빗집에 다녀온 지 며칠 후 교무실에서 잡무를 하는데

“이 선생은 상추를 어떻게 씻나? 한 장씩, 뭉텅이로?”

교감 선생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을 했다.

“상추요? 뭉텅이째 쥐고 한 장씩 씻다가 죄다 흩어놓고 헹구죠. 그러니 한 장씩도 뭉텅이로도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가끔 스님처럼 선문답을 즐기는 분이라 현명한 대답을 내놓았다고 내심 자부하는데

“저희 식사 초대하시려고요? 메뉴는 고기가 보네. 상추가 있는 걸 보니.”

친목회장이 교감 선생님의 마음을 읽었다.

가을 운동회까지 끝났지만, 아직은 늦여름의 기운이 남아 저녁까지 후덥지근한 바람이 마지막 안간힘을 쓰는 듯 간간이 불어오는 날이었다. 교감 선생님 자택은 잔디밭이 작게 펼쳐진 뜰이 있고, 커다란 돌 식탁이 운치 있게 놓여 있는 소박한 양옥이었다. 이미 사모님이 모든 음식을 준비해 놓아서 우리는 정말 상추만 씻으면 됐다. 관절염을 앓고 있다는 사모님이 다리를 절룩거리면서도 살뜰하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마치 엄마 같았다. ‘전에 소고깃국도 사모님이 아픈 다리를 참아가며 끓이셨겠지!’ 지난 토요일의 점심이 떠오르며 사모님께 너무나 미안한 기분이 들었다. 예전에 내가 임무를 완수했다고 뿌듯해했던 것도 부끄러웠다.

“사모님, 힘드시죠? 교감 선생님이 자꾸 교사들 초대해서 밥 먹이고. 식사 준비가 얼마나 부담되는 건데.”

식사가 끝난 그릇을 정리해서 수돗가로 가져가는데 사근사근한 친목회장이 설거지를 거들며 한마디 했다. 아마 내 발령 전에도 잦은 식사 초대가 있었나 보다.

“아이고. 그런 건 괜찮아요. 여기 와서 드시는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근데 재료 하나 어디서 받아와서 툭 던져주고는, 요리하라고 하고 포장하라고 해서 다시 가져가는 거. 그런 게 켈 힘들어요. 뭘 받아온 날엔 당신도 한숨을 푹푹 쉬고 잠도 잘못 자요.”

사모님은 주저하다가 결심한 듯이 이야기를 꺼냈다. 교감 선생님은 10여 년 전, 분교처럼 작은 학교에서 근무하던 시절, 행정실 업무까지 맡으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학교 예산을 처리해야 했다. 그때 함께 근무한 교장이 욕심이 많아 개인적인 용도로 학교 예산에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퇴직하는 바람에 그 손실과 찢값을 업무 담당자였던 교감 선생님이 고스란히 떠맡게 되었다는 놀라운 얘기였다. 원래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 베풀었지, 도움은 잘 안 받는 분이지만, 그 일이 있고 난 후부터는 더더욱 남의 돈이 들어가는 일은 절대 쳐다보지도, 참석하지도 않는다고 했다. 나도 언젠가 술자리에서 교감 선생님이 억울한 일이 있었다고 얼버무리는 걸 들은 기억이 있다. 관심이 없어서 대충 듣고 넘겼는데, 교감 선생님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은 깊은 상처였나 보다. 그 사건 때문에 교감 발령도 늦어지고, 한때 교직을 그만두려는 생각까지 했었다고 한다. 어느새 초대받은 모든 직원이 수돗가에 모여 나긋나긋한 사모님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었다. 다행히 교감 선생님은 아까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남자 교사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거실로 들어가 자리에 없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이제껏 교감 선생님을 힐난했던 사람들은 갑자기 숙연해졌다. 교감 선생님은 술에 취하면 자주 “조심조심 살아야 해. 조심조심.”이란 말을 술버릇처럼 반복하곤 했는데, 그제야 나는 그 이유를 알았다.

누군가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한, 그저 겉으로 보는 모습이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 사람의 전부다.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사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서, 얼마나 쉽게 타인의 다른 점에 대해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비난하는가? 교감 선생님은 너무 깨끗해서 주위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그런 성향도 아니었고, 외부 식사 초대에 아무 거리낌 없이 쫓르르 달려가는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도 아니었다. 다만 일찌감치 '청렴'이란 의미를 아프게 깨닫고 몸소 실천하는 '선각자'였다.

1997년 IMF 사태가 발발하면서 교직에도 명퇴 바람이 불었다. 교감 선생님은 교장 발령을 반년 앞두고 명예퇴직했다. 당신 성향답게 퇴임식 역시 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교직원에게 부담을 주기 싫었던 게다. 끝까지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교감 선생님이 이제 더 이상 특별할 것도 이상해 보일 것도 없었다. 단지 당신의 소신을 일관되게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될 뿐. 퇴임식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작은 식당의 방 한 칸을 빌려 조촐하게, 그러나 나름 정성껏 교감 선생님의 마지막을 함께 했다. 끝끝내 모두가 울음을 터뜨리고 아쉬워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퇴임식이었다.

교감 선생님이 퇴직한다고 하자 사이가 좋았던 교장 선생님도 아픈 몸을 핑계로 덩달아 함께 명퇴를 해버려 관리자 두 분이 동시에 새로 부임했다. 새로 부임한 관리자는 권위 의식을 앞세우고 노골적으로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간식과 선물을 제공해야 했고, 부임 한 달간 퇴근 후에는 거의 매일 식당, 술집, 노래방 순으로 이어지는 회식이 반복되었다. 대부분 학부모가 초대할 회식이었다. 그동안 경력이 찬 선배들은 다른 도시로 떠났고, 새로 발령받은 어린 교사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한마디 항의도 못 한 체 잘 먹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며, 또는 술을 따르며 억지로 회식에 끌려다녔다. 학부모와 춤을 추며 즐거워하는 교장을 보고 눈살이 찌푸러졌지만, 회식에서 조금 일찍 도망쳐 나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항변이었다. 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관리자의 눈 밖에 나는 지름길이었기에. 30여 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면 참으로 괴상망측하고 거북한 회식이었다. 먹지도 못하는 술을 억지로 마시고, 술은 꼭 여교사가 따라야 하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학부모들이 즐지어 서서 교장과 춤을 추고. 되돌아보니 애초에 너무나 좋은, 합리적인 관리자를 만난 나는 행운아였다.

세월을 거둬가면서 대부분 상식적인 관리자를 만났지만, 학교 예산으로 사익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관리자도 간혹 만났다. 아이들이 매일 먹는 급식 재료를 싼 걸로 바꾸고 대신 업체에서 받은 돈을 자신의 주머니에 챙겨 넣는 교장, 운동회나 과학 행사가 있을 때 회의를 통해 업체를 선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를 몰래 불러 필요한 물품 구매를 본인 친구가 하는 문구점으로 바꿔서 하라고 지시하는 교장 등. 공정, 청렴의 의미를 유별난 교감 선생님 덕분에 발령 초 일찌감치 터득한 나는 그때그때 잘못된 관행을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교직 전체에 만연해 있는 '눈감아 주기, 관례'라는 틀을 깨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바로잡으려다가 오히려 내가 위기에 몰리고 소위 관리자에게 찍혀 고생하는 순간이 종종 있었다. 강직하다고 믿었던 선배 교사들의 비겁한 모르쇠 태도를 마주하면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기도 했다. 홀로 싸우다가 참패당하고 곤경에 처한 나의 비참한 처지를 실감하면서 '나도 그냥 가만히 있을까? 조용히 있으면 편하기는 하잖아.'라는 속삭임에 때론 포기할까도 했지만, 그런 안일함이 누군가의 삶을 불공평하게 만든다는 생각에

나는 아직도 미약하나마 교직 사회를 일급수로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의무 연수로 지정되어 해마다 청렴 연수를 받는다. 교직 사회가 많이 개선되고 투명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부패한 음지가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청렴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첫 발령지에서 교감 선생님이 실천했던 깨끗한 행동이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른다. 초임 시절의 황당한 회식과 수상한 뒷돈 거래, 3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시절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부정부패를 유별난 깨끗함으로 이겨낸 교감 선생님, 교감 선생님은 30년 먼저 앞당겨 지금의 청렴 문화를 실천한 '미래에서 온 청렴의 화신'이었다.

가끔 서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해안 바닷가로 여행 갈 때마다 첫 발령지였던 학교 근처를 지나간다. 항구가 들어서면서 학교 건물도 커지고 예전의 느낌은 없지만, 학교를 지나칠 때마다 다정했던 사람들과 토요일 오후에 후후 불어가며 먹었던 특별한 소고깃국이 어김없이 떠오르곤 한다.